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8 Number 03 03 2020

성경과 세계관(6) 이신론
무신론으로 가는 징검다리

지난 호에서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 교회 밖에서 등장한 계몽주의, 즉 교회와 성경을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의 등장에 대하여 다루었다. 계몽주의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자연주의(naturalism)로 이어졌다. 자연주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 분명한 무신론이다.

무신론으로 넘어간 자연주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신론(理神論, deism)이다. 이신론이란 창조자인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고이다. 즉 하나님을 마치 시계처럼 우주를 만든

이신론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신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신론적 위치에 있을 경우

사회나 대부분의 개인은 이 자세를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존재로 인정하면서도, 만드신 다음에는 우주나 우리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며 기적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의 이분법적 신앙이다.

'자연주의'는 설명이 필요 없는 무신론이다(이 글에서 무신론은 '성경'의 하나님을 버린 자세를, 유신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유신론'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자신이 믿고 있던 존재를 바로 버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옳은지 고민도 하고 그 신앙을 버리게 되는 핑계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 신'을 믿는 이신론이다. 이와 같이 이신론은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일종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관하지 않는 이신론적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고 엄밀히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논리성도 없고 오랜 기간 지속되지도 않는다. 결국 얼마 안 되어 무신론적 자세로 쉽게 이동한다. 이신론적 자세는 시대적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각 사람이 겪게 되는 개인적 과정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신론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신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신론적 위치에 있을 경우 사회나 대부분의 개인은 이 자세를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신론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부모를 따라 출석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만약 이신론적 위치에 있을 때 유신론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오늘날 진화론적 교육으로 인해 성경에 대한 신뢰를 버린 자녀들이 신앙적 고민이나 교회를 떠나는 핑계가 있을 터인데, 이는 이신론적 신앙의 위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크리스천 부모나 교회 리더가 반드시 감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계몽주의 철학자로 다루었던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프랑스의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 몽테스키외 남작(Charles Montesquieu, 1689–1755), 볼테르(Voltaire, 1694–1778), 라메트리(Julien La Mettrie, 1709–1751) 등은 이신론적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이신론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분량이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다. 예를 들어 같은 이신론 안에서도 존 로크는 성경에 대하여는 신뢰하는 자세를 보였던 반면, 볼테르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훌륭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결과이다. 결국 후에 등장한 스코틀랜드의 흄(David Hume, 1711–1776), 프랑스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독일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 등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신론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는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방관만 하지 않으셨다. 사람에게 바로 복을 주시며(blessed)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며(said), 채소와 과일은 그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창 1:28, 29). 아울러 첫 사람 아담에게 동물들을 직접 데려와서 보이셨으며(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commanded).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첫 사람은 그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인 것이다. 결코 창조한 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분의 복을 받고 순종했다. 모든 것을 서로 주고 받는 참으로 완벽한 관계였다.

첫 부부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심은 변함이 없으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다(called). 이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했으며, 두 부부에게 책망을 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저주하셨다(창 3:14–19). 이는 분명 사람이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과 조치이다. 또한 그 조치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획도 암시하셨다(창 3:15, 19). 단지 첫 범죄 직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바이다.

문제는 타락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들아…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가까이 와서 변론하자, 개역성경)"(사 41:1)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자신을 변론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대답하신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4). 즉 자신이 처음부터 있던 창조자이며 끝까지 일을 이루실 분이며 만대(generation, 세대)를 이끄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관여하시는 분인 것이다. 결코 창조한 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화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언약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분의 언약에 들어감으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 39)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분법적인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신론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다.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성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분께서 계시하신 성경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이다. 그 결과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식의 이분법적인 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거듭난 성도들의 고백을 찾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성도들의 간구, 성령님의 도우심, 자신의 담대함,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기에 성도와 분리된 하나님이란 찾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하나 됨으로 인한 기뻐함이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19–21)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뉴스레터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오픈

2020년 1월부터 뉴스레터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창조과학선교회를 검색 후 채널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매월 1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뉴스레터와 편지글이 전송됩니다. 지금까지 페이퍼,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뉴스레터를 올해부터 국내외에 한국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께도 창조과학선교회 채널 공유하기도 가능합니다. 뉴스레터가 다양한 전달 방법을 통해 창조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더욱 잘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지난 1월 12-21일 일산산성교회(담임목사 유희숙)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참석입니다.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등 3대 캐니언 뿐 아니라, 뉴 에이지 도시인 세도나, 규화목/페인티드 사막 국립공원, 운석구와 샌디에이고 등 다양한 경유지를 방문했습니다. 각 경유지를 돌며 성경의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뿐 아니라 진화론에서 파생된 교회 안팎과 개인 사회의 악영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일산산성교회는 2021년에도 창탐을 예약했습니다.

창조과학탐사 인도자들을 위한 기도

올 2020년에는 다른 해보다 창조과학탐사가 많이 진행됩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창탐을 통해 참석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인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산산성교회/규화목 국립공원에서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워크숍 스케치

지난 1월 3-6일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AIG(Answers In Genesis)와 전체 진행을 맡은 김낙경 박사의 스케치입니다.

이번 총회는 창조과학선교회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워크숍이었으며, 강사뿐 아니라 사역자들의 가족들 포함 총인원 30명이 함께한 점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하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역지로 보내는 아내와 자녀들이 창조과학 사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들이 함께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 모습과 내용을 함께 이해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총회를 통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강사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강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족과 사역 안에 있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나누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강사들 서로 간의 전공분야 세미나, AIG(Answers In Genesis) 창조박물관에서 대표인 켄 햄(Ken Ham)과 사역자들과의 만남, Ark Encounter(방주와의 마주함)의 관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강사들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의 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 출판된 논문들의 내용들은 그 분야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아시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교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선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창조박물관은 창조과학 전시관이 시작된 곳이고 켄 햄을 비롯한 핵심 사역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 사역의 뜨거움과 열정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창조박물관과 Ark Encounter에는 총 600여명의 전임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여름 방학 기간에는 직원 1500명이상!). 우리를 인솔해주신 쉐퍼(John Sheffer)는 30년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AIG의 후원 분야를 총괄하는 팀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상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우리 한국 과학자들과 가족들을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맞아 주시고, 전시관과 사무실의 구석 구석을 다섯 시간에 걸쳐 투어, 회의, 만남과 인사, 뉴스 방송실 참여 그리고 전시물들의 제작과정까지 일일이 챙겨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시관의 구성은 한마디로 창세기 1-11장을 성경과 과학의 관점에서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느끼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걸작" 이었습니다. 우리 강사들 중에는 이전에 전시관을 방문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같은 전시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미디어의 변화,

AIG 대표인 켄 햄과의 간담회 사회를 맡고 있는 김낙경 박사

문화의 변화, 세대의 변화에 따라 거의 모든 전시물이 다시 업그레이드되어 있었습니다.

Ark Encounter는 수년간에 걸쳐 총 건축비 $1,500만불의 모금활동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많은 건축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AIG사역을 돕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전세계 건축학이 인정한 목조건물중의 세계최대 규모입니다. 개관 후 3년동안 지속적인 방문객의 증가로 현재 매년 약 1백 50만명이 다녀간다 합니다(참고로, 그랜드캐니언의 연간 방문객 수는 4-6백만명). 예상을 뛰어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

아이들이 만지고 놀이하면서 배우는 공간, 신학자들이 즐길 수 있는 성경의 해석과 심오한 내용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 생물학과 지질학 등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물들, 역사학자들이 도전 받을 수 있는 성경과 세속적 고대사 등

락하신 은혜이고, 많은 방문객이 성경이 말하는 노아 홍수를 감동적으로 느끼고 돌아 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즐거운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Ark Encounter에 도착하면 마치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대형 놀이공원이 사용하는 방식의 진행을 느끼는데, 4-D 영화관, 카페와 식당 부분에서 벌써 수준 높은 전시관이나 놀이 공원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온 관람객들에게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물들의 전시상태, 미적인 감각, 시각적인 공간 활용, 컴퓨터를 사용한 여러 복잡하고 견고한 행동 전시물들을 잘 사용한 수준 높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놀이하면서 배우는 공간, 신학자들이 즐길 수 있는 성경의 해석과 심오한 내용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 생물학과 지질학 등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물들, 역사학자들이 도전 받을 수 있는 성경과 세속적 고대사를 비교 설명하는 전시 공간 등을 보면서 많은 연구와 고증, 그리고 전문가들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시물 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IG를 떠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오면 어디를 보고, 어디서 자고, 무얼 느끼게 하고 보내줄까? 두 번째는 그랜드캐니언 투어에 연결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한다면 항공, 숙박, 현지 교통편 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등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민해 봅니다. 이번 창조과학선교회에 보여주신 강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누구보다도 이 워크숍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창조과학선교회 설립 이래 가장 멋진 모임을 갖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낙경, 김효숙 부부(식품공학 박사)

Y염색체 연구는
창세기 대홍수의 연대를 확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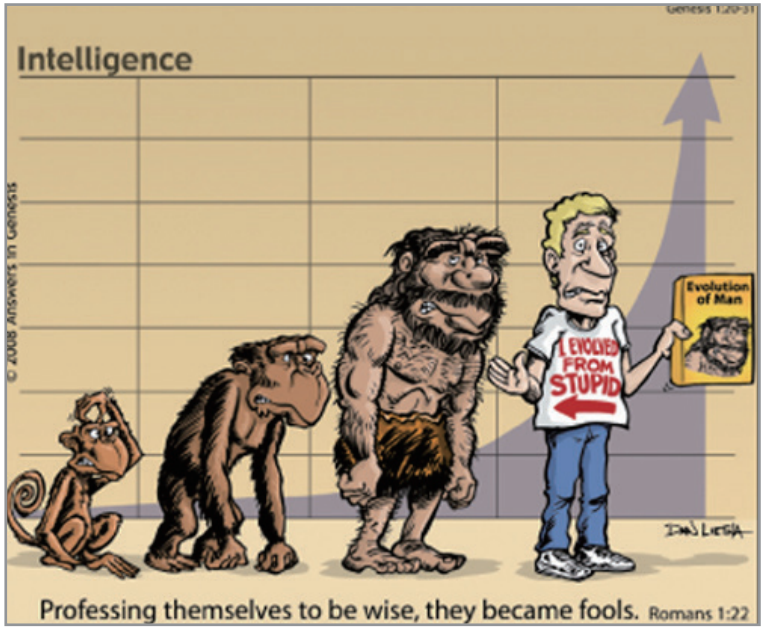
우리는 성경의 연대기와 족보를 통해 창세기에 기록된 전 지구적 대홍수가 약 4,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홍수 이후 지구는 노아의 세 아들과 그들 아내의 후손들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 몇 달 전 발표한 바와 같이, 질 높은 DNA 염기서열 데이터를 이용한 인간 Y 염색체 유전 시계의 개발은 이전의 연구와 현대인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역사를 확증해 준다.

성경의 연대와 족보를 분석하면 인간은 약 6,000년 전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게놈은 약 4,500년 전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의 DNA가 이 땅을 다시 채우는 데 사용되었을 때인 약 4,500년 전 유전적 병목현상을 겪었다. DNA를 분석할 때 이 병목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날짜는 현대인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조상들로부터 최소 약 10만에서 20만 년 이전에 출현했다고 하는 진화론적 주장과 배치된다.

나는 진화론자들이 젊은 지구 시간대에 관한 이 두 번째 증거들을 어떻게 반박할지 빨리 알고 싶다. 그들은 왜 이러한 자료들이 진화와 배치되는지 뿐 아니라, 성경적 창조의 예측들과 왜 이토록 잘 들어맞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분자생물학자와 한 통계학자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훨씬 더 포괄적이고 DNA상의 훨씬 더 길고 연속적인 부분을 포함한 새로운 Y 염색체 DNA 서열을 다운로드했다. Y 염색체는 인간의 가계와 돌연변이를 연구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게놈에서 유전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재조합(recombination)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가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정자와 난자 세포가 형성될 때, 22쌍의 염색체는 서로 DNA 조각들을 교환한다. 이 과정이 Y 염색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안정적이고, 유전 시계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 새로운 연구에서 저자들은 만약 인간이 수십만 년 이상 존재했다면, Y 염색체 DNA 서열에서 현재 관찰할 수 있는 돌연변이보다 8배에서 59배나 더 많은 돌연변이를 축적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최신 연구에서 인간의 Y 염색체 기록에 담긴 부계 혈통에서 단지 4천 5백 년에 해당하는 돌연변이 축적을 관찰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의 선임과학자인 진슨(Nathaniel Jeanson) 박사는 ICR 스태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결과들의 중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연구는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에 새롭고 독립적인 유전적 증거를 추가하게 되었다. 모계로부터 유전되는 DNA를 살펴본 이전의 연구들이 인간이 최근에 창조되었다는 것과 홍수 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유전 되었다는 것을 반영했다. 이 새로운 연구는 이제 부계를 통해 유전된 DNA도 같은 시간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1:22*

이 새로운 연구가 세속 과학계에 제공하는 커다란 도전을 요약하며 진슨 박사는 "나는 진화론자들이 젊은 지구 시간대에 관한 이 두 번째 증거들을 어떻게 반박할지 빨리 알고 싶다. 그들은 왜 이러한 자료들이 진화와 배치되는지 뿐 아니라, 성경적 창조의 예측들과 왜 이토록 잘 들어맞는지 설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계로 유전되는 DNA 와 함께 이제는 부계로 유전되는 DNA에 관해서도 설명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결과들은 진화론적 추측을 명백히 반박할 뿐 아니라 창세기에서 알려주신 성경의 문자적 역사에 의해 밝혀진 인간의 최근 기원에 대한 강력한 확증이다.

번역/이충현(치과 의사,창조과학선교회 강사)

https://www.icr.org/article/11757/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창조과학탐사

대구성은교회, 행복사랑교회
1/18 ~ 1/24, 2019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성경에 대한 명맥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창조과학탐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였습니다. 예수님을 삶에서 더욱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대구성은교회/김규진〉

이번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성경이 사실이다, 진화론의 모순과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지구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대구성은교회/조영원〉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삶에 알게 모르게 틀어박힌 진화론에 대한 반성을 깊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때나 삶 속에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광주샘솟는교회/조예설〉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나는 진화론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이런 생각을 바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창조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고 느껴져 성경을 더 읽고 세상의 과학책이 아닌 성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광주샘솟는교회/신지민〉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변화한 예들을 봤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은 우리를 세상의 먼지 티끌로 만들며 사람을 너무나 낮췄는데 이 땅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것보다 더 높여주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당연히 없어지듯이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잡으면 이 어둠이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대구성은교회/이유민〉

이재만 선교사님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셨겠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진화론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선교사님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내가 또 오고 싶지만, 주변에 친구들에게 이 창조과학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탐사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탐사 동안 느낄 수 있어서 마음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갑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행복사랑교회/이성옥〉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무엇이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것에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기준을 잡지 못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그동안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진화론이 비과학적이고, 창조가 무엇보다도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 성경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행복사랑교회/채인호〉

창조과학탐사에 오기 전, 저는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힌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학교에서 배운 빅뱅 이론, 진화론 등의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성경을 해석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탐사를 통해 느끼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주님의 손길이 닿은 수많은 증거들이 눈에 띄게 있었음을 7일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재만 선교사님이 강조하신 오직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식견으로만 살았던 제게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시야를 갖게 해준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경주제삼교회/주대현〉

사역일정

2020 ACT Schedule

3/10-12	창조과학탐사(미남침례한인총회), 김낙경
4/7-14	창조과학탐사 (천안아산제자교회), 이재만
4/19-23	창조과학탐사 (임마누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4/27-5/3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8-22	창조과학탐사 (수지글로리아교회), 이재만
5/25-30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6/1-5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 이재만
6/8-16	창조과학탐사 (온누리한강공동체), 이재만
6/15-19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2-29	창조과학탐사 (CEO스쿨), 이재만
7/1-5	창조과학탐사 (서진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